

經濟力集中과 인플레이션에 관한 研究: 韓國製造業을 中心으로

姜 明 憲*

<目 次>

- I. 序 論
- II. 經濟力集中과 인플레이션
- III. 韓國經濟構造와 實證分析
- IV. 結 論

I. 序 論

韓國經濟는 정부의 주도로 高度의 經濟成長을 이룩하였으나, 70年代 후반에 이르러 성장우선주의의 不均衡成長으로 인한 모순점들이 나타났다.

특히 大企業 중심의 지원정책을 통한 정부의 工業化 政策은 경제성장을 이룩하는데 기여하였으나, 그 결과로 少數의 企業에 經濟力이 集中됨에 따라 파행적인 산업의 이중구조를 형성하였다.

사실상 輸入依存度가 지나치게 높은 한국경제에 있어서, 가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소유한 대기업들은 高價格戰略을 통해서 특히 해외요인에 기인하는 輸入物價의 상승을 그대로 국내가격에 전가시킴으로써 한국의 物價上昇에 주요한 영향을 주어왔다.

물론 이러한 獨寡占企業의 가격관리의 형태는 1976년 이후로 정부의 규제를 받아 계약받아 왔으나, 經濟力集中에 수반되는 經濟的 效果는 앞으로의 한국경제의 발전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民間主道の 市場經濟體制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려는 관점에서 볼 때 경제력집중의 효과를 올바르게 인식·평가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매우 긴급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시각에서 市場構造 특히 經濟力集中이 인플레이션의 進

* 檀國大學校 經濟學科

行過程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分析하는 데 있다.

경제력집중이 인플레이션의 進行過程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론적 틀은 Means (1972)의 管理價格假說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는 1950년대의 美國經濟가 겪은 인플레이션은 시장지배력을 소유한 독과점기업들이 수요변화에 관계없이 가격을 自意的으로 引上시킨 데에 기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격을 市場價格과 管理價格으로 구분하여 단기에 있어 각각의 가격형태를 조사하였지만 그 후 관리가격 인플레이션에 대한 論爭은 集中率이 높을수록 가격상승률이 높으며 이것은 장기적 현상이라는 假說을 둘러싸고 進行되어 왔다.

장기에 걸쳐 독과점적 대기업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가격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여 대기업이 인플레이션의 進行過程에 부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假說을 檢證하기 위하여 Depodwin and Selden, Weiss, Dalton 등 많은 실증분석이 행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諸研究들은 두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는 集中率과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이론적 모형이 정태적인 성격을 띠어 동태적 분석이 필요한 인플레이션의 研究에 부적당하다.

둘째는 그 모형이 부분균형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그 모형이 他部門과는 고립적으로 개별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즉 모든 가격의 일반적인 수준의 움직임인 인플레이션보다는 상대가격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市場構造와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분석상에 위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주로 영·미 간의 경제학자들에 의하여 제기되었던 이러한 가설을 경제력집중이 심화되어온 韓國經濟에 있어 경제력집중이 인플레이션의 進行過程에 영향을 미쳤는지, 미쳤다면 어느 정도 影響을 미쳤는지를 통해 검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Means 이후 발전된 經濟力集中과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고, 그 理論을 바탕으로 한국실정에 맞는 측정모형을 만들어 한국경제에서 경제력집중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경제력집중에 대한 대응정책의 필요성 有無를 검증하는 이론적·실증적 근거를 제시하려고 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으로 본장인 序論에 이어 Ⅱ節에서는 經濟力集中과 價格變化 간의 직·간접 관계를 이론과 기존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Ⅲ節에서는 한국의 인플레이션을 產業組織側面에서 개괄하고 이를 바탕으로 韓國製造業을 대상으로 경제력집중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여 살펴 봄으로써 이론의 현실성을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IV節에서는 本 研究에서 얻은 結果를 要約한다.

II. 經濟力集中과 인플레이션

경제력집중이 인플레이션의 진행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論議의 理論的 틀은 Means의 管理價格 인플레이션假說에 근거를 두고 있다. Means는 가격을 시장 가격과 관리가격으로 구분하여 단기의 경기변동에만 각각의 가격형태를 조사하였지만 그 후 관리가격 인플레이션에 관한 찬반의 논쟁은 집중률이 높을수록 가격 상승률이 높으며 이것은 장기적 현상이라는 가설을 둘러싸고 진행되어온 것이다.

이러한 經濟力集中과 인플레이션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한국의 경우 미미한 실정이고, 서양의 기존 연구들의 접근방법은 거의 대부분이 經濟力集中과 인플레이션의 직접적이고 임의적인 관계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本稿에서는 이러한 임의적 관계분석과 더불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되는 이윤율과 임금률을 고려하여 經濟力集中의 效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즉,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論點이 되는 것은 첫째, 경제력집중과 利潤率의 관계, 경제력집중과 임금률의 관계를 규명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인플레이션의 進行過程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아 간접적으로 경제력집중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를 분석하며, 둘째, 전통적인 방법으로 직접적인 경제력집중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1. 經濟力集中과 利潤率・賃金率

Bain(1951)의 연구에서 產業集中率과 利潤率 間의 正의 상관관계가 최초로 밝혀졌을 때 그는 이러한 正의 상관관계를 談合의 영향으로 설명하려 했다. 즉 高集中產業은 談合을 용이하게 하며 이러한 談合의 행위는 현실적으로 觀察하기는 어려우나, 談合의 결과로써 產業의 高利潤率이 보장되기 때문에 산업집중률과 이윤율 간의 正의 상관관계는 기업간 談合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고 하였다. 환언하면 寡占市場에서 談合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결합이윤의 극대치를 얻게 되며 담합능력이 낮을수록 결합이윤도 낮게 되며 談合能力은 市場의 集中率이 높을수록 크므로 결국 집중률과 이윤율은 正의 관계에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Cowling and Waterson(1976)은 집중과 이윤율 간에 正의 관계를 주장하더라도 談合이나 進入障壁을 배제하고 다음 식을 이용하여 企業들의 利潤極大化條件에서 집중률과 이윤율 간의 正의 관계를 도출하였다.

$$\frac{PX - \sum cx}{PX} = \frac{H}{\eta} \quad (1)$$

여기서 P = 産業價格

x = 代表的 企業의 產出量

c = 單位當 可變費用

$X = \sum x$ 는 總産業產出量

$H = \sum (x/X)^2$ 는 허핀달집중지수이고, $\eta = -(P/X) (dX/dP)$ 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나타내며, 식(1)의 좌변은 價格—費用 마진을 나타낸다. $H(0 < H < 1)$ 가 1에 가까울수록 집중률이 높은 것을 나타내므로, 결국 집중률이 증가할수록 이윤율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시장구조와 이윤율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은 Bain(1951)에 의해서 처음 시도되었고, 그의 분석 이후, 構造—成果연구에 관한 큰 문제점은 집중과 더불어 가격—비용 마진을 결정하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즉 표본산업 간의 탄력성이 마치 모두 동일한 것처럼 간주하므로, 산업간 수요탄력성의 상이가 마진에 대한 집중의 영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기존의 실증연구에 대한 結果를 요약한 것이 <表 1>이다.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인 結論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이윤율과 집중률 사이에 正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력집중과 임금률 간의 관계분석의 접근방법은 勞動의 가격결정문제로 귀착되며 여기에는 두 가지 이론이 대립되고 있다. 그 하나는 저임금률 결정이론인데 이는 독점기업은 경쟁적인 기업보다 더 낮은 임금을 지불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임금률과 집중률간에는 正의 관계가 있어 집중된 산업일수록 高賃金を 지불한다는 高賃金率決定理論이다.¹⁾

집중률과 임금률 간의 正의 관계에 대한 해석은 學者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는데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勞動市場에서의 시장지배력 특히 勞動組合과 관련시켜 집중된 산업에서의 高賃金を 說明하려는 見解로, 시장집중률이 높은 기업은 대개 대규모 사업장을 갖게 되어 상대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화와 활성화가 용이하며 높은 團體交涉力을 가지므로 노동조합의 압력에 의해 초과이윤이 노동자에게 부가적으로 배당된다는 것

1) Garbarino (1950, pp. 285-305).

〈表 1〉 集中率과 利潤率 間의 關係分析 結果

| 研 究 者 | 分 析 對 象 | 分 析 期 間 | 集 中 率 | 利 潤 率 | 結 果 |
|--------------------------------|--|--------------|-------------------------------|-----------------------------|---|
| J.S. Bain | 4-digit 42産業 | 1936~40 | 上位 8社出荷額 集中率 | 自己資本純利 益率 | 正의 係數, 有意的 |
| N.R. Collins & L.E. Preston | 4-digit ① 417産業 ② 243産業 | 1958 1963 | 上位 4社出荷額 集中率 | 産業總收入一直 接費 | ① 417) 正의 係數, ② 243) 有意的 |
| S.A. Phoades & J.M. Cleaver | 4-digit 352産業 | 1967 | 上位 4社出荷額 集中率 | (附加價值一直 接費)/出荷額 | 正의 係數, 有意的 |
| 李 奎 億 | 74年 賣出額 基準 對象業體 10, 20, 50, 100億 | 1973~74 | 上位 3社出荷額 集中率 | (附加價值一給 與額)/附加價值 의 4개 | 正의 係數, 有意的 |
| 申 義 淳 | 5-digit ① 218産業 ② 307産業 | 1978 | ① 事業體基準 ② 上位 5社出 荷額 集中率 | 産業平均收益率 價格一費用 마 아진率 | ① 218: 正의 係數, 非有意的 주요사업체(5大) 一正, 有意的 중소규모기업군 一負, 非有意的 ② 307: 正의 係數, 非有意的 |
| 金 基 台 | 品目別上場企業 資料 64個品目 | 1977~1981 | 品目別上場企業 上位 3社賣出額 集中率 | 自己資本 純利 益率 | 64品目: 正의 係數, 有意的 |

이다. 이와 관련하여 Blair(1959)는 獨寡占企業이 경쟁적 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이윤율을 실현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영향력도 강하게 행사되어 임금인상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 때 독과점기업은 임금인상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인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독과점기업들은 임금인상으로 인한 비용상승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쉽게 전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둘째로, 집중된 산업에서의 高賃金を 노동력의 지적 우수성에서 찾는 견해로 시장집중률이 높은 산업을 대기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보고 시장집중률이 낮은 산업을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볼 때, 대기업의 경우 노동자의 평균근속년수, 남자노동자의 비율, 고학력노동자수 등이 중소기업보다 높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同一한 學歷水準과 同一한 勤續年數를 갖는 勞動者의 경우도 大企業의 경우 質的으로 또는 生産性 側面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이다.

셋째로, 集中된 産業에서의 高賃金を 賃金프리미엄의 支給에서 그 원인을 찾는 見解가 있다. 집중된 산업에서의 기업은 대개 대규모 조직이기 때문에 노동자 개개

〈表 2〉 集中率과 賃金率 間의 關係分析 結果

| 研 究 者 | 分 析 對 象 | 分析期間 | 集 中 率 | 賃 金 率 | 結 果 |
|----------------------------------|-------------------------------|--------------|-----------------|--------------|-----------------|
| C.T. Haworth & D.W. Rasmussen | 4-digit 390産業 | 1963 | 上位 4社出荷額 集中率 | 時間當 平均賃 金 | 正의 係數, 非有 意的 |
| C.T. Haworth & C.J. Reuther | 4-digit ① 207産業 ② 359産業 | 1958 1967 | 上位 4社出荷額 集中率 | 時間當 賃金率 | 正의 係數, 有意 的 |
| J.H. Kwoka, Jr. | 3-digit 250産業 | 1977 | 上位 4社出荷額 集中率 | 時間當 賃金率 | 正의 係數, 非有 意的 |

인을 감독·지도하는 데에 막대한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훈련·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勞働者의 移職에 따른 기업의 비용부담이 크다. 따라서 직무태만을 줄이고, 이직율을 감소시키는 효율적인 賃金政策을 시행하게 된다. 그래서 집중된 산업에서의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한편 임금프리미엄의 지급을 다소 상이한 시각에서 보는 견해도 있다. Ross and Wachter(1973)는 고집중산업에서의 독과점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지불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상태변화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勞動力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표준비용에 일정한 마크업을 가산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관례가 임금변동으로 혼란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주장한다.

시장구조와 임금을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은 Weiss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시도되었고, 그의 分析 이후 集中率—賃金率 間의 關係分析이 많이 행해졌다.

기존의 실증연구에 대한 結果를 요약한 것이 〈表 2〉이다.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研究結果에 의하면 비록 有意性은 낮더라도 賃金率과 集中率 사이에 正의 關係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윤율과 임금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市場支配力을 所有한 독과점기업은 가격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賃金引上和 같은 費用上昇時에 그에 따른 相對的인 利潤減少를 막기 위해 가격을 초기의 이윤수준 혹은 그 以上으로 自意的으로 인상시켜 費用引上 人플레이션을 유발할 수가 있다. 더 나아가 집중률이 높은 산업일수록 이윤율수준이 높다면(利潤부위가 강하다면), 또 집중률이 높은 산업일수록 임금률수준이 높다면(賃金부위가 강하다면) 그 利潤水準 확보를 위한 가격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며, 그 임금수준을 보상하는 價格引上이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行態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2. 經濟力集中과 인플레이션

市場構造와 價格變化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Means(1972)의 관리가격가설에서 비롯된다. 그는 市場需要供給條件의 변화에 민감하게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경쟁적 시장의 市場價格(market price)과 수급조건에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의사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일련의 거래에 대하여 유지되는 독과점시장의 管理價格(administered price)을 구별하고 그 형태의 차이로서 경기변동에 따른 가격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자 했다.

즉 市場價格은 수요증감에 따라 즉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관리가격은 수요감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때로는 오히려 상승하며 수요증대의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안정되어 있다가 상승하므로 下方硬直性(downward inflexibility)과 上方流動性(upward flexibility)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환언하면 관리가격은 수요변화에 대하여 시장가격과는 다른 형태를 보이며 이러한 時差로 인하여 경기변동의 진폭이 상쇄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Means의 주장은 미국경제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론적 분석이라기보다는 統計結果의 제시에 불과한 것으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Means는 價格을 시장가격과 관리가격으로 구분하여 短期의 景氣變動에만 국한하여 각각 그 형태를 조사하였지만, 그 이후 관리가격가설은 集中率이 높을수록 가격상승률이 높으며 이것은 장기적 현상이라는 가설을 둘러싸고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시장구조와 가격변화에 대한 장기적 관계규명은 Means의 주장과는 관련이 없으며, 論點은 단기에 관리가격 인플레이션가설이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장기에 걸쳐 독과점적 대기업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가격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여 대기업이 인플레이션의 進行過程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것이다.

集中率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는 다음의 논리로 연결된다.

첫째는, “水準假說”(level hypothesis)이라는 것으로, 獨寡占企業이나 勞動組合이 이윤푸쉬 혹은 임금푸쉬를 통해서 자신들의 소득을 증가시키려는 일방적인 시도로부터 야기되는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다. 기업이나 노조가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이윤 혹은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은 총고용수준 혹은 경제상태와는 무관한 시장지배력을 그들이 소유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둘째는, “時差假說”(lag hypothesis)로, 관리가격의 조정과정을 경제상태의 변화와 연결시키는 것이다. 수요인플레이션의 초기에는 시장가격은 관리가격이 지체되

〈表 3〉 集中率과 인플레이션 間의 關係分析 結果

| 研 究 者 | 分析期間 | 標 本 | 結 果 |
|-------------------------------|--|-------------------------|---|
| Depodwin & Selden (1963) | 1953~59 | US, 非加重費用變數 | 正의 係數, 非有意的 |
| Weiss(1966) | 1953~59 1959~63 | US, 加重 非加重)費用變數 | 正의 係數, 有意的 負의 係數, 非有意的 |
| Dalton(1973) | 1958~63 1963~66 1967~69 | US, 非加重費用變數 | 正의 係數, 有意的 負의 係數 正의 係數 |
| Weston & Lustgarten (1974) | 1958~65 | US, 非加重費用變數 | 負의 係數, 非有意的 |
| Lustgarten(1975) | 1958~59 1959~60 1961~62 1962~63 | US, 非加重費用變數 | 正의 係數, 有意的 負의 係數, 非有意的 負의 係數, 非有意的 正의 係數, 非有意的 |
| Philips(1971) | 1958~64 1958~65 | Benelux, 非加重 加重)費用變數 | 負의 係數, 非有意的 正의 係數, 非有意的 |
| 李 奎 億(1977) | 1973~74 | Korea, 加重費用變數 | 正의 係數, 有意的 |

어 不變動하는 반면에 더 빠르게 上昇하며, 再調整時期에는, 市場價格이 下落하는 반면에 관리가격은 상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관리가격의 상승률이 경쟁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²⁾

시장구조와 가격변화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은 Depodwin and Selden(1963)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고, 그들의 분석 이후 많은 실증분석이 행해졌다.

기존의 실증연구에 대한 결과를 要約한 것이 〈表 3〉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직 어떤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는 곤란하다.

Ⅲ. 韓國經濟構造와 實證分析

1. 韓國經濟構造 : 市場構造와 인플레이션

한국경제의 總費用構造를 총비용항목의 상대적 비중으로 살펴보면 原材料費가 가장 높고, 다음은 利潤, 利子, 賃貸料 등의 항목이며 세번째는 人件費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비용상승인플레이션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2) Domberger (1983).

인플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비용항목의 분류기준으로 볼 때 原材料費이며 그 다음이 利潤, 利子, 집세 등이고 세번째는 人件費임을 알 수 있다.

한편 賃金과 物價와의 관계를 더 자세히 알아보면, 1984년 기업경영분석 결과를 보면 제조업부가가치 중 人件費가 49%로 임금비율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1984년도 分配國民所得에 의하면 피용자보수가 52%나 되고 비법인소득까지 포함하면 임금비율이 60%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가 중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 임금인상은 곧 原價上昇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1982년 이후 實質賃金上昇率이 부가가치생산성 증가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특히 1985년의 경우 부가가치생산성이 마이너스 1.7%인데 비하여 實質賃金은 6.6%로 높게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물가상승 및 국제경쟁력 약화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市場支配力을 소유한 대기업들의 高價格戰略, 특히 海外要因에 기인하는 수입물가의 상승을 그대로 국내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는 힘의 행사도 물가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경제력집중으로 인해 대기업들이 시장지배력을 소유하게 된 데에 연유한다.

한편 1972~81년 기간만을 놓고 볼 때 獨寡占價格上昇率은 경쟁상품 가격상승률보다 낮다. 즉 경쟁상품 가격상승률은 연평균이 18.0%인데 대해서 독과점상품 가격상승률은 15.8%이다. 그러나 이는 1976년부터 시행된 「物價安定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과 1981년부터 시행된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을 통한 정부의 物價安定政策, 獨占規制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物價安定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이 시행되기 전체인 1975년까지를 보면 독과점상품 가격상승률이 경쟁상품 가격상승률보다 크다. 1972~75년의 연평균 상승률은 경쟁상품 가격의 경우에는 17.2%이고, 독과점상품 가격의 경우에는 19.5%이다. 그리고 특히 제1,2차 오일쇼크기간에 속하는 1974~75년과 1979~80년에는 독과점상품가격의 연평균상승률이 경쟁상품가격의 연평균상승률보다 훨씬 크다. 경쟁상품가격의 연평균상승률이 각각 24.8%, 20.3%인 데 대해서 독과점상품 가격의 연평균 상승률은 30.2%, 27.0%이다.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大企業의 경우 輸出爲主로 생산을 함에 따라 中小企業에 비해 海外原資材輸入依存度가 높아 海外原資材價格이 상승할 때 그것을 바로 국내가격에 전가시킨다는 것이다. 또 소수기업이 생산을 장악하면 여러 기업이 생산에 참가하여 경쟁을 하는 경우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들은 不況이 되어도 가격을 떨어뜨리는 대신에 生産量을 줄이고 生産性이 向上되더라

도 가격을 낮추지 않는다.

이렇게 大企業의 獨寡占價格戰略이 물가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工業化의 推進過程에서 형성된 독과점화 내지 경제력집중에 기인한다.

韓國經濟는 그 동안의 개방체제 하의 外延的 擴大基調와 능률제고, 양산체제만을 指向하는 大企業偏向的 不均衡成長政策으로 말미암아 경제력집중이 상당히 심화되었다. 30대 企業集團의 출하액이 광공업전체의 출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7년 34.1%이던 것이 1985년에는 40.2%로 커졌으며, 市場支配的 사업자의 집중률(품목수 기준)은 1984년의 60.5%에서 1985년에는 63.5%로 되었다. 즉 韓國全體產業中 소수 대기업집단들이 차지하는 비중인 집중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집중추세가 심화되어 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기업지배영역의 확대 또는 독과점의 체제는 이를 위한 資本形成이 국내적 요인에 기초를 둔 自生的 性格을 갖는 것이 아니라 外國資本의 導入과 재정·금융의 특혜적 지원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생산체제면에서 볼 때는 非獨寡占部門과의 補完的 關係를 크게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經濟力集中이 심화되어온 한국경제에서는 競爭이 배제된 독과점시장이 형성되어 상품의 가격은 原材料費가 上昇하거나, 賃金이 引上되면 그것들을 그대로 가격에 반영하거나 기술혁신에 따른 예상외의 費用節減要因들은 가격인하가 아니라 초과이윤으로 흡수하여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少數의 大企業이 독점 내지 독과점으로 生産을 장악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받으며 不況이 되어도 가격을 떨어뜨리는 대신에 生産量을 줄이고 生産性이 向上되더라도 價格을 낮추지 않는 대기업들의 독과점상품 가격정책도 물가변동에 영향을 주어왔다.

2. 實證分析

1) 模型設定 및 측정방법

$$PR=f(AS, \dot{F}\dot{C}, \dot{C}\dot{R})$$

$$W=f(SEX, LP, f_c, SIZE, DCR, CR)$$

$$\dot{P}=f(\dot{G}\dot{R}, \dot{F}\dot{C}, PR)$$

$$\dot{P}=f(\dot{G}\dot{R}, \dot{F}\dot{C}, W)$$

$$\dot{P}=f(WS, RS, \dot{F}\dot{C}, \dot{C}\dot{R})$$

각 변수들의 정의 및 출처는 <表 4>에 요약되어 있다. 위의 다섯 가지 기본적인 회귀식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데 있어 그 관계를 구성하는 요인들의 측정치인 변수

〈表 4〉變數의 定義 및 資料出處

| 變 數 名 | 測 定 方 法 | 資 料 |
|---------------------------|--------------------------------|---------------------------------|
| 上位 3社賣出額基準集中度 CR_3 | (當該業種의 3社 賣出額/當該市場 總賣出額)×100 | 經濟企劃院 發行「鑛工業統計 調查報告書」 |
| 上位 3社附加價值基準集中度 ACR_3 | (當該業種의 3社 附加價值/當該市場 總附加價值)×100 | " |
| 廣告集約度 AS | (廣告費/賣出額)×100 | 韓國產業銀行發行「財務分析」 經濟企劃院, 前揭書 |
| 需要成長率 GR | 賣出額 增加率 | 韓國產業銀行 發行, 前揭書 |
| 單位當 勞動費 WS | 勞動費/賣出額 | 經濟企劃院, 前揭書 |
| 單位當 原材料費 RS | 原材料費/賣出額 | " |
| 賣出額 Q | | 韓國產業銀行, 前揭書 |
| 實質賃金率 W | 年賃金所得/(1人當 年平均 勞動時間×總勞動者數) | 勞動部, 「每月勞動統計調查報告書, 內務部, 都市人口年鑑」 |
| 女子勤勞者率 SEX | 女子勤勞者數×總勤勞者數 | " |
| 事業體規模 $SIZE$ | 總勤勞者數 | " |
| 勞動生產性 LP | 總附加價值 | " |
| 固定費用 fc | 總減價償却費 | " |
| 價格·費用 마진率 PR | (賣出額-給與額)/賣出額 | " |
| 加重된 產業細分類別 物價指數 P | Σ (各品目出荷額×各品目物價指數)/總出荷額 | 韓國銀行, 「物價總覽」 |
| 企業純利益率 FNP | {(支給利子割引料+當期純利益)/總資本}×100 | 韓國產業銀行, 前揭書 |
| 賣出額純利益率 PQP | (當期純利益/純賣出額)×100 | " |
| 總資本純利益率 TCP | (當期純利益/總資本)×100 | " |
| 自己資本純利益率 OCP | (當期純利益/自己資本)×100 | " |
| 輸入單價指數變化率 FC | 輸入都賣物價指數變化率+換率變化率 | 韓國銀行, 「調查統計月報」 「物價總覽」 |

들은 그들의 측정상에 나타나는 자체의 문제점과 가용자료 이용상의 문제들로 인해 상당한 제약과 한계를 갖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소화시킬 수 있는 동시에, 보다 일반화된 변수만을 택하고, 이때 이들이 가능한 韓國의 市場特性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믿어지는 최소한의 변수들만을 선정코자 하였다.

경제력집중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를 실증분석하기 위한 방법을 利潤率, 賃金率 그리고 가격변화와 이들의 결정변수들 사이에 선형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최소자승법에 의한 單純·重回歸分析方法에 의한 橫斷面分析(cross section analysis)과 時系列分析(time series analysis)을 이용하였다.

분석기간의 설정은 諸變명변수에 대한 통계자료 입수의 制約으로 1977~85년으로 限定하였으며, 對象産業은 上位 3社 매출액기준집중률의 자료와의 연결가능성을 고려하여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의 細分類 56個 産業을 對象으로 하

였다.³⁾

2) 推定結果 및 經濟的 意味⁴⁾

이미 설정된 회귀식에 대한 추정결과 및 회귀계수들에 대한 검증결과를 체계적으로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⁵⁾

(1) 集中率—利潤率 關係分析

이윤율회귀식의 횡단면 분석결과를 요약한 것이 〈表 5〉이다.

전반적으로 이윤율회귀모형은 좋은 결과를 갖는 것으로 생각되며, 구체적으로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廣告와의 관계는 1個年을 제외하고 有意的인 正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는 시장에서의 기업들이 集中深化를 통한 이윤율확보 및 제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광고는 反競爭的 요인으로서 이윤확보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입단가변화율과의 관계는 비록 有意的인 負를 나타내는 年度가 1個年이나, 대부분의 회귀계수가 負로 나타나 해외원재료 가격상승이 이윤율의 감소요인이 됨을 보여준다. 集中率과의 관계는 4個年이 有意的인 正의 關係를 보이고, 有意的인 負의 關係를 보이는 年度는 없으며, 대부분 非有意的인 正의 관계를 보이므로 집중률은 이윤율 확보에 正의 효과를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高集中企業의 경우는 보다 많은 廣告行爲를 통해 시장수요 誘發과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유지 내지는 強化시킴으로써 고이윤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時系列分析의 경우 추정모형별 집중률변화지수의 回歸係數에 대해 t 통계량의 절대값이 2 이상인 경우를 有意的이라고 볼 때 有意的인 正의 관계를 보이는 산업이 負의 경우보다 더 많다. 특히 有意的인 산업을 구분하여 볼 때 유의적인 正의 관계를 보이는 산업이 대부분 消費財產業임이 드러난다.

이는 生産財產業에서보다는 消費財產業에서 製品差別 등과 같은 방법이 상대적

3) 산업분류 및 CR_3 등 기타의 변수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姜明憲(1988)을 참조.

4) 모든 시계열분석결과와 일부 횡단면분석결과를 요약한 표들을 지면관계로 생략했으며 姜明憲(1989) 참조.

5) 전체적인 추정결과의 특이한 점은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한 시점에서의 집중률(CR)과 집중률변화(\dot{CR})를 교대로 사용해 본 결과 \dot{CR} 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설명력이 높았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dot{CR} 의 이용은 기존연구에 내재될 정태성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보다 적절한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두번째는 보고의 대상기간인 1977~85년까지에는 오일쇼크와 같은 외생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으므로 해서 이러한 외생적인 편차를 제거하기 위해서 더미 변수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表 5〉利潤率決定에 관한 橫斷面分析

$$PR=f(AS, \dot{FC}, \dot{CR})$$

| 年度 | 變數 | 常 數 | AS | \dot{FC} | \dot{CR} | R ² |
|------|----|-----------------|-------------------|-----------------------|------------------|----------------|
| 1978 | | 0.34 (6.68) | 6.16 (2.45)*** | -0.45 (-0.94) | 0.17 (2.20)** | 0.20 |
| 1979 | | 0.26 (8.52) | 2.88 (2.20)** | -0.14 E-01 (-0.13) | 0.26 (1.51)* | 0.12 |
| 1980 | | 0.31 (5.83) | 3.22 (2.14)** | -0.99 E-01 (-0.83) | 0.32 (1.60)* | 0.13 |
| 1981 | | 0.21 (4.16) | 5.21 (3.03)*** | 0.21 (0.75) | 0.28 (0.22) | 0.15 |
| 1982 | | 0.23 (10.20) | 4.51 (3.41)*** | 0.20 (1.01) | 0.13 (0.85) | 0.19 |
| 1983 | | 0.23 (7.61) | 3.59 (2.90)*** | -0.16 (-0.38) | -0.80 (-0.69) | 0.16 |
| 1984 | | 0.24 (7.73) | 3.38 (2.45)*** | -0.73 E-01 (-0.28) | 0.11 (0.53) | 0.12 |
| 1985 | | 0.32 (6.18) | 1.90 (0.84) | -0.64 (-1.48)* | 0.33 (1.51)* | 0.12 |

註: 1) ()는 t-통계량

2) *: 0.10 有意水準, **: 0.05 有意水準, ***: 0.01 有意水準

으로 순위위 高利潤率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集中率—賃金率 關係分析

임금률회귀식의 횡단면분석결과를 〈表 6〉으로 整理하였다. 전반적으로 賃金率回歸模型도 좋은 결과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人的 特性을 나타내는 변수인 女子勞動比率(SEX)의 회귀계수는 有意的인 負, 勞動生産性(LP)은 有意的인 正의 關係를 나타낸다. 이 결과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여자근로자비율이 높으면 임금율이 하락할 수 있으며, 노동생산성의 증가에 따라 임금률도 상승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에 산업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인 기업체의 規模(SIZE)와 固定費用(fc)은 有意的인 負의 關係를 나타내는데 전자의 경우는 기업체의 規模를 勞動者數로 代理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며, 고정비용의 경우는 임금률의 결정에 있어서 고정비용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한편 고집중을 나타내는 더미 변수 DCR은 임금률과 負의 關係를 나타내는데 이는 한국제조업전체에서 고집중산업의 경우 임금률에 역관계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관심변수인 집중률(CR)은 賃金率決定에 상당히 높은 설명력을 보여준다. 有意的인 正의 關係를 보여 집중률과 임금률 간에는 正의 關係가 존재한다고 본다. 이는 집중률이 높을수록 임금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表 6〉賃金率決定에 관한 橫斷面 分析

$$W=f(SEX, LP, fc, CR, SIZE, DCR)$$

| 變數 年度 | 常 數 | SEX | LP | fc | CR | SIZE | DCR | R ² |
|----------|--------------------|-------------------------|------------------------|----------------------|-----------------------|----------------------|----------------------|----------------|
| 1977 | 0.21 E-3 (3.17) | 0.91 E-4 (1.03) | 0.25 E-9 (1.19) | 0.22 E-8 (0.89) | 0.28 E-3 (1.86)** | -0.10 E-8 (-1.61) | -0.21 E-4 (-2.94) | 0.36 |
| 1978 | 0.34 E-3 (3.16) | -0.79 E-4 (-0.44) | 0.35 E-8 (11.37)*** | -0.75 E-8 (-5.11) | 0.62 E-3 (2.48)*** | -0.11 E-7 (-8.60) | -0.16 E-3 (-1.41) | 0.83 |
| 1979 | 0.48 E-4 (2.68) | -0.55 E-3 (-1.95)** | 0.44 E-8 (6.67)*** | -0.16 E-7 (-4.67) | 0.11 E-2 (2.84)*** | -0.13 E-7 (-5.45) | -0.26 E-3 (-1.45) | 0.64 |
| 1980 | 0.81 E-3 (6.03) | -0.57 E-3 (-2.50)*** | 0.25 E-8 (8.66)*** | -0.43 E-8 (-3.56) | 0.43 E-3 (1.43)* | -0.92 E-5 (-5.59) | -0.60 E-4 (-0.45) | 0.75 |
| 1981 | 0.17 E-2 (0.67) | 0.20 E-2 (-0.49) | 0.45 E-8 (0.66) | -0.13 E-7 (-0.49) | -0.45 E-2 (-0.80) | -0.22 E-7 (-0.67) | 0.41 E-2 (-1.65) | 0.08 |
| 1982 | 0.64 E-3 (6.65) | -0.46 E-3 (-3.08)*** | 0.16 E-8 (5.24)*** | -0.42 E-8 (-4.15) | 0.53 E-3 (2.56)*** | -0.44 E-8 (-3.21) | -0.47 E-4 (-0.50) | 0.65 |
| 1983 | 0.55 E-3 (5.89) | -0.53 E-3 (-3.26)*** | 0.15 E-8 (5.42)*** | -0.42 E-8 (-4.32) | 0.11 E-2 (5.29)*** | -0.41 E-8 (-3.37) | -0.66 E-3 (-1.73) | 0.74 |
| 1984 | 0.35 E-2 (1.92) | -0.36 E-2 (-1.15) | 0.23 E-10 (-0.0067) | -0.24 E-8 (-0.23) | -0.18 E-2 (-0.48) | -0.31 E-8 (-0.15) | -0.21 E-3 (-0.12) | 0.44 |
| 1985 | 0.76 E-3 (6.74) | -0.57 E-3 (-3.08)*** | 0.78 E-9 (3.16)*** | -0.15 E-8 (-1.89) | 0.89 E-3 (3.45)*** | -0.28 E-8 (-2.04) | -0.13 E-3 (-1.09) | 0.58 |

註: 1) ()는 t -통계량

2) *: 0.10 有意水準, **: 0.05 有意水準, ***: 0.01 有意水準.

시계열분석의 경우 추정모형별 集中率指數의 回歸係數에 대해 t -통계량의 절대값이 2 이상인 경우를 유의적이라고 볼 때 유의적인 正의 관계를 보이는 산업이 負의 경우보다 더 많은 것을 미루어 보아 時系列分析에서도 경제력집중과 賃金率 간에서는 正의 관계가 存在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CR 대신에 \dot{CR} 을 이용했을 경우 집중률변화와 임금률 간에는 어느 정도 負의 關係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즉 정태적인 CR 을 이용하면 高集中産業에서는 高賃金을 지불하는 결과를 얻고, 動態적인 \dot{CR} 을 이용하면 集中率의 증가는 임금률에 負의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얻는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집중률의 증가는 독점도의 증가를 의미해 이는 임금률상승에 逆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⁶⁾

(3) 利潤率, 賃金率과 價格變化 關係

먼저 이윤율과 가격변화와의 횡단면분석 결과를 〈表 7〉에서 보면 需要成長率을 나타내는 변수인 GR 의 경우 1個年이 유의적인 正의 관계를 나타내고, 유의적인 負

6) $W=F(\dot{CR})$ 의 時系列分析의 경우 集中率回歸係數의 t -통계량이 절대값 2 이상인 경우를 有意的이라고 할때 負의 관계를 보이는 산업은 6이고 正의 관계를 보이는 산업은 없었다.

〈表 7〉 價格變化에 관한 橫斷面 分析 I

$$\dot{P}=f(\dot{GR}, \dot{FC}, PR)$$

| 年度 | 變數 | 常 數 | \dot{GR} | \dot{FC} | PR | R^2 |
|------|----|-----------------------|-----------------------|----------------------|----------------------------|-------|
| 1978 | | 0.72 E-01 (3.28) | -0.25 E-01 (-0.77) | 0.10 (0.78) | -0.26 E-01 (-0.77) | 0.04 |
| 1979 | | 0.20 (3.83) | -0.70 (-0.64) | 0.11 (1.22) | -0.10 (-0.90) | 0.05 |
| 1980 | | 2.24 (2.66) | 0.16 (1.84)* | 0.11 (0.92) | -0.73 E-01 (-0.47) | 0.10 |
| 1981 | | 0.21 (4.67) | -0.32 E-02 (-0.58) | -0.40 (-1.92)* | 0.29 E-02 (0.27) | 0.09 |
| 1982 | | 0.32 E-01 (1.49) | 0.82 E-01 (1.25) | 0.75 E-01 (0.85) | 0.36 E-02 (0.60 E-01) | 0.05 |
| 1983 | | -0.14 E-01 (-1.35) | 0.35 E-02 (0.20) | 0.31 (3.00)*** | 0.36 E-01 (1.27) | 0.17 |
| 1984 | | 0.12 E-01 (0.93) | 0.15 E-01 (0.59) | 0.99 E-01 (1.50)* | -0.32 E-03 (-0.94 E-02) | 0.05 |
| 1985 | | -0.18 E-01 (-2.13) | 0.11 E-01 (1.05) | 0.35 E-01 (0.66) | 0.27 E-01 (1.52)* | 0.05 |

註: 1) ()은 t -통계량

2) *: 0.10 有意水準, **: 0.05 有意水準, ***: 0.01 有意水準

의 관계를 나타내는 年度는 없으며 대부분의 回歸係數가 비록 유의성은 낮으나 正의 값을 가져 수요성장률과 가격변화 사이에 正의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海外要因을 고려한 輸入單價變化率은 유의적인 正의 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예상한 대로 海外原資材價格上昇은 국내가격의 상승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가장 관심있는 利潤率의 경우는 10%의 유의수준에서 1個年이 正의 관계를 보이므로 미약하나마 이윤율과 가격변화 사이에 正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時系列分析의 경우 測定模型別 利潤率指數의 回歸係數에 대해 t -통계량의 절대값이 2인 이상인 경우를 유의적이라고 볼 때 有意的인 正의 관계를 보이는 산업이 負의 경우보다 더 많은 것을 미루어 보아 時系列分析에서도 利潤率과 價格變化사이에 正의 관계가 存在함을 알 수 있다.

임금률과 가격변화의 횡단면분석결과는 〈表 8〉에 요약되어 있다. \dot{GR} 과 \dot{FC} 의 경우 앞의 경우와 같고, 가장 중요한 변수인 賃金率의 경우, 賃金率回歸係數가 2個年이 有意的인 正, 2個年이 유의적인 負의 관계를 보여 賃金率이 가격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일률적으로 결론내릴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대상기간 중에서 2차 오일쇼크에 의한 高인플레이션 기간인 1979, 1980년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正의 關係를 보이고, 低인플레이션 기간인 1983, 1984, 1985년의 경우에는 어

〈表 8〉 價格變化에 관한 橫斷面 分析Ⅱ
 $\dot{P}=f(\dot{GR}, \dot{FC}, W)$

| 變數 年度 | 常 數 | \dot{GR} | \dot{FC} | W | R^2 |
|----------|-----------------------|-----------------------|----------------------|----------------------|-------|
| 1978 | 0.77 E-01 (2.83) | -0.31 E-01 (-0.96) | 0.86 E-01 (0.03) | -12.03 (-0.68) | 0.04 |
| 1979 | 0.15 (3.27) | -0.99 E-01 (-0.86) | 0.99 E-01 (1.08) | 36.33 (1.01) | 0.05 |
| 1980 | 0.32 E-01 (0.37) | 0.19 (2.49)*** | 0.76 E-01 (0.68) | 208.30 (2.99)*** | 0.23 |
| 1981 | 0.22 (6.63) | -0.39 E-02 (-0.74) | -0.37 (-1.79)** | -2.34 (-0.70) | 0.09 |
| 1982 | -0.87 E-02 (-0.30) | 0.83 E-01 (1.29) | 0.81 E-01 (0.94) | 42.40 (1.57)* | 0.10 |
| 1983 | 0.16 E-01 (1.17) | 0.29 E-02 (0.17) | 0.27 (2.69)*** | -17.25 (-1.64)* | 0.19 |
| 1984 | 0.13 E-01 (1.48) | 0.15 E-01 (0.57) | 0.97 E-01 (1.45)* | -0.31 (-0.21) | 0.05 |
| 1985 | 0.37 E-01 (2.55) | 0.13 E-02 (0.14) | 0.55 E-02 (-0.11) | -36.00 (-3.33)*** | 0.19 |

註: 1) ()은 t -통계량

2) *: 0.10 有意水準, **: 0.05 有意水準, ***: 0.01 有意水準

는 정도 負의 關係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인플레이기간에 기업들은 인플레로 인한 강한 임금인상압력을 가격인상으로 곧장 전가시키는 반면에 低인플레이기간에는 다소 약한 임금인상압력을 가격에 전가시키지 아니하고 他部門에서 이를 흡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高인플레이기간에는 임금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이 성립되고, 低인플레이기간에는 임금인상에 대한 下方硬直性으로 인한 상대적인 價格下落이 成立한다고 볼 수 있다.

時系列分析의 경우 賃金率과 價格變化 간에 압도적으로 많은 負의 關係가 存在한다. 이는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의 관계에서 파악해야 되는데 실질임금의 인상분보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상회할때 임금상승은 가격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특히 실증분석기간 동안 한국제조업의 경우에 실질임금의 상승이 勞動生産性을 못따라 갔다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다.

(4) 集中率—價格變化 關係分析

價格變化回歸式的 橫斷面분석결과를 요약한 것이 〈表 9〉이다.

가격변화의 비용측면을 나타내는 노동비율과 원재료비비율, 그리고 수입단가변화율은 대체로 가격변화에 正의 效果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WS 의 경우 2個年이 유의적인 正의 關係를 보여주고, RS 의 경우는 유의성은 비록 낮으나 전반적으로 正

〈表 9〉 價格變化에 관한 橫斷面 分析Ⅲ

$$\dot{P}=f(WS, RS, \dot{FC}, \dot{CR})$$

| 變數 年度 | 常 數 | WS | RS | \dot{FC} | \dot{CR} | R ² |
|----------|---------------------------|------------------------|--------------------------|---------------------|----------------------------|----------------|
| 1978 | 0.49 E-01 (1.89) | 0.36 E-01 (2.93)*** | -0.87 E-02 (-0.21) | 0.88 E-01 (0.67) | 0.23 E-01 (1.02) | 0.03 |
| 1979 | 0.17 (4.31) | -0.20 (-1.10) | 0.81 E-02 (0.14) | 0.10 (1.11) | 0.15 (0.94) | 0.06 |
| 1980 | 0.33 (4.47) | -0.69 (-2.72)*** | 0.12 (1.41)* | 0.22 E-01 (0.18) | 0.27 (1.19) | 0.14 |
| 1981 | 0.19 (4.30) | -0.20 (-0.90) | 0.78 E-01 (1.28) | -0.41 (-1.95) | 0.89 (0.92) | 0.12 |
| 1982 | 0.36 E-01 (-0.15 E-01) | -0.19 E-02 (0.35) | 0.13 E-01 (1.11) | 0.10 (0.67 E-01) | -0.50 E-02 (-0.67 E-01) | 0.03 |
| 1983 | -0.86 E-02 (-0.88) | 0.15 (2.28)*** | -0.19 (-1.20) | 0.25 (2.51)*** | -0.12 (-0.47) | 0.22 |
| 1984 | 0.13 E-01 (1.05) | 0.23 E-01 (0.23) | 0.36 E-03 (0.16 E-01) | 0.92 E-01 (1.28) | -0.35 E-02 (-0.63) | 0.05 |
| 1985 | -0.12 E-01 (-1.20) | 0.28 E-01 (0.43) | 0.17 E-02 (0.80 E-01) | 0.14 E-01 (0.24) | -0.23 E-01 (-0.78) | 0.02 |

註: 1) ()은 t-통계량

2) *: 0.10 有意水準, **: 0.05 有意水準, ***: 0.01 有意水準

의 관계를 나타낸다. 또한 \dot{FC} 의 경우는 1個年이 有意的인 正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는 대체로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집중률의 경우, 일률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나, 다음과 같이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분석기간을 高인플레이션 기간과 低인플레이션 기간으로 구분하여 보면, 비록 유의성은 낮으나 전자의 경우는 전부 正의 관계를 보여주고, 후자의 경우는 負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高인플레이션 기간에 大企業은 價格競爭力이 있어서 高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여러 부문의 비용인상압력을 가격으로 전가시키고 低인플레이션 기간에는 다소 약한 비용인상압력을 타부문에서 흡수하는 독과점기업들의 가격설정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시계열분석의 경우 추정모형별 집중률변화지표의 회귀계수에 대한 t-통계량의 절대값이 2 이상인 경우를 유의적이라고 볼 때 有意的인 正의 관계를 보이는 産業이 負의 경우보다 더 많으므로 시계열분석에서도 경제력집중이 가격변화에 正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一般集中率과 價格變化

10大와 30大企業集團의 一般集中率과 제조업전체의 도매물가를 1978년부터 1985년까지에 대해 回歸分析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dot{WP} = -0.64E-04 + 0.80\dot{FC} + 0.43\dot{C}_{10}, R^2 = 0.84$$

$$(-0.18E-04)(4.74) \quad (1.02)$$

$$\dot{WP} = -0.36E-03 + 0.78\dot{FC} + 1.04\dot{C}_{30}, R^2 = 0.87$$

$$(-0.12E-03)(5.17) \quad (1.17)$$

여기서 WP 는 제조업전체의 도매물가지수, FC 는 수입단가지수, C_{10} , C_{30} 는 각각 10大 및 30大기업집단의 매출액기준 일반집중률을 나타낸다.

위에서 보듯이 수입단가변화율의 경우 正의 係數가 상당한 유의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제조업이 수입의존도가 높아서 가격변화가 해외요인(기초생산재 및 중간재, 부품의 가격상승)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集中率의 경우 비록 유의성은 낮으나, 正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經濟力集中이 價格變化에 어느정도 正의 효과를 준다고 볼 수 있다.

IV. 結 論

Means에 의해 市場構造와 價格變化 간에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설이 등장한 이후 이에 대한 찬반의 논쟁은 장기적 측면에서 시장구조가 인플레이션의 진행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論議의 기반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獨寡占企業의 독점력이나 시장지배력을 통한 일방적인 이윤추구에 있다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요컨대 市場支配力을 소유한 독과점기업은 價格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인상시에 그 비용인상을 상쇄하여 초기의 이윤수준 혹은 그 이상을 누리기 위해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어서 그로 인한 費用引上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經濟力集中으로 獨寡占地位를 누리는 企業이 自意的으로 價格을 引上시켜 全般的 物價上昇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假說檢定에 관하여는 여러 사람이 실증분석을 하였으나 結果는 各各 상이하여 일관성을 갖고 經濟力集中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理論을 바탕으로 한국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經濟力集中의 否定的 側面이라고 할 수 있는 經濟力集中이 인플레이션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설의 타당성과 현실성여부를 검증하고 그 영향정도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에 있어서 경제력집중의 심화에 따른 政策의 必要性을 檢證하는 것을 本研究의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市場構造를 나타내는 집중률과 가격변화와의 관계를 직접 다중회귀분석하는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직접분석의

에 이윤율과 임금률을 고려하는 간접적인 고찰도 포함하였다.

위와 같은 方法으로 한국 제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集中率과 利潤率 間에는 有意的인 正의 關係가 있다. 이는 集中된 產業에서 市場支配力을 이용하여 높은 利潤率을 누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廣告는 利潤率上昇에 큰 영향을 주며, 輸入單價變化率의 경우에는 利潤率에 負의 효과를 준다. 이는 해외원재료 가격상승이 이윤율의 감소요인이 됨을 보여 주는 것이다.

둘째, 집중률과 임금률 간에는 유의적인 正의 關係가 있다. 이는 高集中產業에서는 市場支配力을 이용하여 쉽게 얻은 초과이윤을 勞働者에게 부가적인 고임금으로 지불함을 의미한다. 또한 여자근로자비율이 높으면 임금률은 하락하고, 생산성이 높으면 임금률은 상승한다는 일반적인 논리를 입증해 준다. 그러나 기업체의 크기와 고정비용 변수의 경우 대리변수의 부적절함으로 예상된 결과를 얻지 못했다.

또한 CR 대신에 \bar{CR} 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위와 상반된 결과를 얻게 되는데 이는 집중률의 증가 즉, 독점도의 증가는 임금률상승에 역작용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이윤율과 가격변화의 경우에는, 미약하나마 正의 關係가 있다. 이는 利潤푸쉬(profit-push)로 인한 가격상승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임금률과 가격변화 간에는 다소 흥미로운 관계를 볼 수 있다. 횡단면 분석의 경우에는 高인플레이션 기간에는 유의적인 正의 관계, 低인플레이션 기간에는 유의적인 負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는 高인플레이션 때 企業은 賃金引上壓力을 곧장 가격에 전가시키고, 低인플레이션 때는 임금인상압력을 타부문에서 흡수하는 企業의 行態를 의미한다. 시계열분석의 경우 압도적으로 많은 산업들이 負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한국제조업의 경우에 실질임금의 증가가 노동생산성을 따라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넷째, 집중률과 가격변화 간에는 크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 正의 관계가 있다. 물론 이것은 경제력집중이 인플레이션의 진행과정에 正의 효과를 미쳤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한가지 특이한 점은 高인플레이션 기간에는 집중계수의 부호가 正, 低인플레이션 기간에는 負를 나타낸다는 사실이다.

다섯째, 一般集中率과 價格變化와의 관계분석에 있어서 해외요인을 나타내는 輸入單價變化率은 價格變化에 正의 효과를 준다. 이는 韓國製造業이 수입의존도가 높아 價格變化가 해외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비록 有意性은 낮으나 集中率도 價格變化에 正의 효과를 주어 경제력집중이 가격변화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실증분석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였는데 경제력집중은 일반적으로 한국제조업의 경우 가격변화에正的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가격수준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상승하여 독과점기업에게는 이윤이 증가하게 되며 消費者에게는厚生 내지 총체적 만족수준이 하락하게 되어 소득이 소비자에게서 생산자에게로 재분배되어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參 考 文 獻

1. 姜明憲, “經濟力 集中의 經濟的 效果에 관한 研究,” 『1987년도 定期學術大會論文集』, 韓國經濟學會, 1988.
2. ———, “經濟力 集中과 所得分配에 관한 研究,” 『學術大會發表論文集』, 韓國產業組織學會, 1988.
3. ———, “經濟力集中과 인플레이션에 관한 研究,” 學術振興財團報告書, 1989.
4. 金基台, “韓國製造業의 市場構造와 市場成果 間의 關係에 관한 研究,” 『韓國經濟』, 第12集, 成均館大 韓國產業研究所, 1984.
5. 朴在潤, “인플레이션의 原因에 관한 理論的 對立,” 『經濟論集』, 서울大經濟研究所, 1968.
6. 申義淳, “韓國製造業의 市場構造와 利潤性間 相互關係의 實證的 研究,” 『產業과 經營』, 第20卷 第2號, 延世大產業經營研究所, 1983.
7. ———, “市場構造와 規模의 經濟,” 『產業과 經營』, 延世大產業經營研究所, 1986.
8. 李奎億, 『市場構造와 獨寡占規制』, 韓國開發研究院, 1984.
9. 李奎億 外, “企業結合과 經濟力集中,” 韓國開發研究院, 1985.
10. 丁炳休, “產業集中에 관한 基礎的 研究,” 『經濟論集』, 第9卷, 서울大經濟研究所, 1970.
11. 趙炳澤, “高度成長過程 下에서의 價格・費用 마아진率 決定에 대한 計量的 接近,” 『經濟研究』, 第3卷 第2號, 漢陽大經濟研究所, 1982.
12. Bain, J.S., “Relation of Profit Rate to Industry Concentration: American Manufacturing, 1936~1940,”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951.
13. Blair, J.M., “Administered Prices: A Phenomenon in Search of a Theory,”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59.
14. Cowling, Kand, and M. Waterson, “Price-cost Margins and Market Structure,” *Economica*, Aug. 1976.
15. Domberger, S., *Industrial Structure, Pricing and Inflation*, Martin

Robertson & Oxford, 1983.

16. Garbarino, J.M., "A Theory of Interindustry Wage Vari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May 1950.
17. Jeong, Kap-Young., "Industrial Concentration and Profitability in the Korean Manufacturing Sector," *Korean Economic Review*, Sept. 1987.
18. Means, G.C., *The Corporate Revolution in America*, New York, Crowell-Collier Press, 1962.
19. Means, G.C., "The Administered Price Thesis Reconfirmed," *American Economic Review*, June 1972.
20. Ross, S.A., and M.L. Wachter, "Wage Determination, Inflation and the Industrial Structure," *American Economic Review*, Sept. 1973.
21. Weiss, L.W., "Business Pricing Policies and Inflation Reconsidered."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66.